1. 신청서 작성을 시작하기 *전에* 신청서와 *모든* 보충 자료를 읽어 보십시오.
2. 회중, 중간공의회 및 신학교에 대한 조치 권장사항의 목록을 검토하고, 해당 프로젝트에서 하나 이상의 사안을 처리하는 방법을 고려하십시오.
3. 교회, 중간공의회, 신학교, 더 넓은 공동와 관련된 정신 건강에 익숙해지면 여러분은 자신의 프로젝트가 필요를 다루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거나, 당신의 상황에서 기존 작업을 확장하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다.
4. 제안서를 작성 중인 당신과 다른 사람들이 정신 질환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이 없다면, 당신의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정신 질환을 가진 사람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의견을 구하라. '우리가 없으면 우리에 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5. 미치는 영향이 가능한 크고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제안에 이를 표시하라.
	1. 기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교회는 노회에 승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함으로 프로젝트의 잠재적 영향을 넓히는 일이 됩니다.
	2.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 (예: 상담, 워크샵, 정신건강 인식의 날, 강사/패널), 후속 조치를 위한 계획을 제시하십시오. 예를 들어, 미래의 일들에 대해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등록하는 방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3. 개인 또는 대표단이 행사에 참석하도록 후원하는 경우 (예: 정신 건강 응급처치 교육), 진행 중인 정신 건강 부서에 이 학습을 어떻게 다시 주입할 것인지 설명하십시오.
6. '전략적'이 되십시오. 예를 들어, 목사, 청년부 지도자, 안내자, 교회 사무직원, 봉사단원들, 집사들은 모두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을 포함하여 그들을 지원하고 환영하는 과정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신학교 및 중간공의회 지원자들은 그들의 상황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도록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십시오.
7. 이 보조금 프로그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며 장로교 단체(개인이 아님)의 프로젝트 '씨 뿌리기'를 위한 것이므로, 지속적인 직원 직책이나 정신건강 전문 학위를 추구하는 개인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대신, 별개의 일을 완수한다는 측면에서 생각하십시오 (예: 자원 위임, 상담 개최, 훈련 행사 후원, 연락망 구축을 위한 지역 교회 내 일련의 정신건강 사역 대화 조직, 옹호의 날 후원 등).
8. 외부(PCUSA가 아닌) 파트너와 협력하여 개별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보조금 신청서는 이것이 미국장로교의 정신건강 사역을 시작하거나 발전시키는 진정한 동역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9. 이것들은 단지 프로젝트 제안을 개발하며 생각을 시작하기 위한 몇 가지 점들과 아이디어입니다. 창의력을 발휘하십시오! 보조금 신청서가 길거나 형식적이거나 전문 용어로 가득 차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각 질문에 명확히 답하고 집중하십시오.